

전 남친 결혼식에서 '재결합'하자며 오열한 여성

최근 중국 저장성에서 진행된 결혼식장에 전 남자친구와의 재결합을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 이날 예식의 주인공이었던 예비 부부와 식장에 참석했던 하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은 문제의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하객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약 30초에 달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2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예식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과 과거 오랜 기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 확인됐다.

영상 속 이 여성은 결혼식의 막바지인 예비 부부의 입맞춤 및 서약이 있을 시간에 맞춰 하얀색 드레스와 면사포 등을 착용하고 단상 위에 등장해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예비 신랑의 손을 잡고 "다시 재결합하자!"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떠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오열했다. 이 같은 상황에 당황하던 예비 신부는 자신의 손을 잡으며 상황을 설명하려는 예비 신랑을 뒤로 하고 예식장을 빠져나가며 해당 영상은 종료된다.

현장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결혼식장에 신부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두 명의 신부가 오르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 매우 민망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예비 신부는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냉



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국이 웃지 못할 촌극은 예식의 주인공이었던 예비 신부가 식장을 박차고 나서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식장 밖으로 나가는 신부를 쫓는 신랑과 그에게 버려진 전 여자친구의 오열만 식장에 오래 남아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한 네티즌은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같은 엉뚱한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결합을 주장하는 날이 결혼식 당일, 예식장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오로지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결합을 호소하면 결혼식장에 난입한 여성을 힐난했다.

호주에 상륙한 한국식 먹방 열풍

한국의 '먹방' 열풍이 호주 여성들에게까지 번졌다.

8일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한국의 '먹방' 열풍에 호주 여성들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카메라 앞에서 대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대는 기괴한 SNS 트렌드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먹지 못했다."면서 "KFC를 사랑하는 구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내가 '먹방'에 얼마나 더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후회하지는 않지만 패배감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호주의 여성 사진작가인 태너 이코트(23)는 KFC의 햄버거와 감자튀김, 치킨 너겟, 팝콘 치킨, 그레이비 등을 먹어치우는 20분짜리 먹방 영상으로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다. 이미 29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끌어 모은 이코트는 "음식이 날 흥분시킨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냐?"며 "나에게는 음식이 전부"라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패스트푸드 먹기에 도전했다. 그러나 결국 중도에 포기를 선언했다.

데일리메일은 이코트가 '먹방'에 동참한 수십만 명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면서 갈수록 많은 호주 여성이 먹방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먹방BJ(개인인터넷방송의 방장을 이룸, 편집자 주)박서연 씨를 언급하며 그녀가 먹방으로 매달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소개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2015년에도 한국의 먹방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한국의 먹방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과식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먹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호주 여성들 사이에서 먹방이 번지자 먹방에 대해 다시 조명하며 과거의 예측이 잘못됐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소아암 극복한 생후 4개월 여아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소아암 진단을 받고 암과 싸운 아기가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몰리 휴즈는 지난 2017년 생후 4개월 만에 소아암 중 하나인 신경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주로 10세 미만의 소아에게서 발생한다.

한 살도 채 되지 않아 암 4기 진단을 받은 몰리는 생후 5개월이 되던 때부터 1년 반 동안 각종 항암치료를 받았다. 몰리의 어머니 켈시 휴즈는 "처음 딸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몰리를 껴안고 영영 울었다."며 "실제로 껴보기 전까지는 이 모든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냈다.



어려운 항암치료를 견뎌낸 몰리는 최근 완치 판정을 받고 2살의 건강한 아기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켈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암 완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안도감

에 휩싸였다."면서도 "재발 위험이 있어 5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몰리는 암 재발을 막기 위해 임상시험 중인 약도 복용하기 시작했다.

몰리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여느 아기들처럼 호기심이 넘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켈시는 "몰리는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다."며 웃었다.

켈시는 곧 몰리를 데리고 바다를 찾을 예정이다. 그녀는 "물을 좋아하는 몰리가 그간 가슴에 부착한 링거 주사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물놀이나 목욕을 해보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몰리 인생 첫 수영을 시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고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